

교회 소식

1. 환영합니다

- 언약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.
-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역자나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**우리교회는 어린 아가들부터 온가족이 함께 예배드립니다. 그래서 조금 소란할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가급적 앞좌석에 앉아주시면, 좀 더 정숙한 분위기에서 예배드리실 수 있습니다.**

2. 기타 안내

- ① 이번 토요일(13일)부터 주일(14일)까지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.
장소는 <주님마을교회>(033-264-9920, 춘천시 남산면 갯골길 49)입니다.
혹시 함께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신상윤 목사님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.
- ② 최재원 형제 가정이 이번주 수요일에 다시 요르단으로 출국합니다.
- ③ 7월 재정보고를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.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
- ④ 오늘 오후 예배 후, 청년부 봉사활동이 있습니다.
- ⑤ 이번주 화요일로 <요한복음 반나절 성경공부>를 마무리합니다.
- ⑥ 교역자 휴가: 전진영 전도사

온라인 헌금

- ▣ 일반헌금 : 국민은행 387-21-0060-940 (예금주/조호진)
신한은행 308-12-390429 (예금주/조호진)
우리은행 1005-901-708982 (예금주/언약교회)
- ▣ 예배당매입헌금 : 국민은행 830502-04-176405 (예금주/조호진)

봉사 안내

	이번 주(8/7)	다음 주(8/14)
설거지	김광수, 한상우, 김상현	김동현, 강수빈, 김충현
오후통독	이명규(골로새서4장-살전1장)	문수선(데살로니가전서 2-3장)

대한예수교
장로회

언약교회

COVENANT COMMUNITY CHURCH

섬기는데 목사-조호진, 신상윤 / 전도사-전진영
서울 관악구 인현동 181-6 현대아파트상가 (3층)

☎ 02-875-7760 <http://www.unyak.org> <제18-32호 / 2016년 8월7일>

말씀이 깊고 풍성한 교회

온 성도가 믿음과 섬김으로 "제자삼는 제자"가 되는 교회



(눈사람)

주일	유·초등부	오후 1시30분
	중·고등부	오전9시30분
	주일예배	오전11시 // 오후1시30분
주중	<아침예배>	오전9시30분(월-금)
	수요예배	저녁7시30분

주일 예배 순서

인도 : 조호진 목사

-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 일어서서
- 사도신경 일어서서
- 회개와 감사 기도 일어서서
- 찬양 찬송가 531장 "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" 다함께
- 대표기도 조수연 자매
- 성경 봉독 이사야 47장 1-15절 말씀 이은주 자매
- 말씀 『**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**』 조호진 목사
- 결단의 기도 다함께
- 성도의 교제 다함께
- 광고 인도자
- 찬양 "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" 일어서서
- 축도 조호진 목사

- ▣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.
- ▣ 예배 후에는 점심 식사 및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.

		다음주(8/14)	2주 후(8/21)
예배 위원	대표 기도	조형숙 자매	김하연 자매
	성경 봉독	김선영 자매	전계현 자매

성경 본문 (개역개정판 47장 1-15절 말씀)

바벨론을 향한 심판 선포 (이사야 47장 1-15절 말씀)

선포①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선포

- 01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
딸 갈대아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
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
- 02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
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
- 03 네 속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
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

이스라엘의 화답

- 04 우리의 구원자는
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

선포②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

- 05 딸 갈대아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
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
- 06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
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거늘
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
늙은이에게 네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⁰⁷ 말하기를
내가 영영히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
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
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

선포③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선포

- 08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
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
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
- 09 한 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
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임할 것이라
네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
이 일이 온전히 네게 임하리라
- 10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
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
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
- 11 재앙이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
손해가 네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
파멸이 홀연히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

선포④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

- 12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 보라
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,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,
- 13 네가 많은 계약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
-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
일어나 네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
- 14 보라 그들은 초개 같아서 불에 타리니
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
이 불은 덥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
- 15 네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네게 이같이 되리니
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
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